

민천주보

제2597호

2019년 12월 29일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만수3동 성당 — • — 만수6동 성당 — • — 백령도 성당

입당송 |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 집회 3,2-6.12-14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1)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 콜로 3,12-21

복음 환호송 |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 마태 2,13-15.19-23

영성체송 |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1월 1일 전례는 6면에 있습니다.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이 주의 성경읽기표

요 일	29 (주일)	30 (월)	31 (화)	1 (수)	2 (목)	3 (금)	4 (토)
성경 / 장	묵시 15-18	묵시 19-22	미사 봉헌	마태 1,1-1,25	마태 2,1-2,23	마태 3,1-3,17	마태 4,1-4,25
확 인							

나에게 부족한 동정과 호의,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서 그리고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인 사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예전에 제가 했던 공치사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가봤는데, 등등으로 시작하는 자랑거리, 허세 그러다 보면 평가와 지적이 이어지고 어느새 대화는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대화의 흐름은 이상하게 되풀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가 결국엔 불평과 불만으로 불편해진 마음을 가지고 끝났었는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이러한 모습이 없어지고 좋게 변하겠지 하고 기대도 해보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좋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 어느새 나도 끈대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인정 속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 나무위키에서 끈대에 대한 설명을 읽던 중 재미난 내용이 있어 나누어봅니다.

끈대의 육하원칙 : Who (내가 누군 줄 알아?), What (니가 뭘 안다고?), Where (어딜 감히?), When (나 때는 말이야), How (어떻게 그걸 나한테?), Why (내가 그걸 왜?)

나자렛 성가정을 바라봅니다. 철저한 침묵과 하느님의 뜻을 새기며 그 뜻을 품고 사셨던 성모님과 요셉 성인.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에서부터 꿈에서의 계시, 마굿간에서의 출산, 이집트로의 피신과 생활 등등,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의문에서부터 많은 질문과 많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듯하기도 한데, 성가정은 늘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바램과 뜻보다는 언제나 하느님의 이끄심과 하느님의 뜻을 먼저 보십니다.

“내가, 나”라는 것이 우선시 되어지지 않았던 나자렛 성가정.

하느님의 이끄심과 하느님의 뜻이 늘 우선이고, 중심이었던 곳.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2독서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저의 부족한 면을 새기며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의 면을 찾아봅니다.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골로 3,12-14)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부모 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다.

부모 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한정수 그레고리오 신부
은계 본당 주임

이주의 암송구절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묵시 21,6)

유배 이후의 이야기 - 에즈라·느헤미야기

바빌론 유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다윗 왕조의 몰락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1,500Km가 넘는 먼 곳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문화, 낯선 환경 속에서 그들은 유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빌론 유배는 50년간 이어집니다. 50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고대근동의 패권국가인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에 의해서 바빌론은 멸망합니다. 키루스는 바빌론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하게 된 민족들에게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루스 칙령'입니다. 이렇게 유배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지에서 돌아오고 나서 마주한 현실을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입니다.

에즈라는 페르시아의 사신의 자격으로 유다 지방에 파견된 사제 출신 율법학자였고(에즈 7.6.11),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의 술 시중 담당관이었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전권으로 부여받고 귀국한 인물로, 유다 지방의 총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느헤 5.14).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유배 이후 귀환 공동체가 최우선으로 삼은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0년의 긴 유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옛날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파괴되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현존의 장소였으며,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요, 하느님께 올바른 제사를 봉헌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50년간 이 중요한 장소를 잃어버린 채 살아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배에서 귀환한 이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성전 재건에 착수하고 완성합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파스카 축제를 지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 하느님 백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에즈 1-6장). 가시적이고 외적인 재건이 성전 재건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내적인 재건에 힘을 기울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과 혼인한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유다 지방에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에즈 7-10장).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씨앗"(에즈 9.2)이라고 인식하였기에 이방인과 혼종혼에 대해서 엄격하였습니다. 특히 귀환 이후 유대인들은 정체성 회복이라는 과제 앞에서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과 에즈라의 개혁에 뒤이어 등장하는 느헤미야기는 계속되는 귀환 이후 공동체의 재건에 주목합니다. 에즈라기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파스카 축제, 이방인들에 대한 추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느헤미야기는 느헤미야의 활약 속에서 이뤄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주목합니다(느헤 1-7장). 유배 이후 폐허로 남겨졌던 예루살렘은 이제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활약 속에서 다시 재건되어 주님의 찬란한 도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에즈라가 등장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선포하고 초막절 축제를 지냅니다(느헤 8-10장). 마지막으로,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울러 성전을 정화하고, 안식일의 준수와 이민족과의 혼인 금지하는 개혁의 이야기로 느헤미야기는 마무리됩니다(느헤 11-13장).

에즈라·느헤미야기는 귀환 이후 공동체가 잃었던 하느님 백성의 신원을 회복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리라고 여겨진 성전과 성벽의 재건, 야속하게 보이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에 대한 처우의 모습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엄격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 몸으로 바치는 기도, 성경필사

성경필사의 역사

성경필사의 역사는 성경 형성의 역사와 그 맥을 공유합니다. 성경은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종교적 이야기에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축제 때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탈출 12,26-27 참조) 왕실 학자들과 성전의 사제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하나의 책으로 엮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들이 모여 오늘날 성경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성경필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측합니다.

수도원의 필사실(Scriptorium)

중세 수도원에서 중요하게 여긴 일 중 하나는 성경 필사였습니다. 15세기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하기 전까지는 모든 책이 필사를 통해 출판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이러한 책들을 보관하였는데, 책이 오래되어 파손되기 전에 미리 필사를 해두었습니다.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일할 수 있는 수도자는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한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여 직접 손으로 필사할 필요가 없어져도 많은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성경필사를 지속하였습니다. 성경필사가 단순히 성경을 베껴 쓰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오래 들여 정성스럽게 손수 하느님 말씀을 새겨듣는, 하느님을 향한 기도의 행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성경필사 준비

성경필사를 하기 위해선 우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기에 편한 성경과 필사를 할 노트나 종이, 그리고 손에 편한 볼펜을 준비합니다. '쓰기성경'이나 '은총 성경 쓰기'라는 필사용 노트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사를 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성경 전부를 필사하겠다고 계획하면 쉽사리 포기합니다. 우선 복음서 한 권을 정하여 필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꾸준한 계획이 좋습니다. 하루 10분, 바쁜 날은 한 구절이라도 매일 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성경을 순

서대로 모두 적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한 다음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노트에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마음에 한 번 더 새긴다는 생각으로 손으로 써본다면, 그 구절에 대한 느낌은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성경필사 실천

성경필사를 하기 전에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 바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시편을 정하여 바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날의 분량을 채운다는 마음보다는 천천히 하느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긴다는 마음가짐이 좋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필사를 하며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네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서둘러 분량을 채운다는 마음보다는 천천히 하느님 말씀에 머무른다는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필사를 마칠 때에도 시작할 때처럼 기도로 마치십시오.

생명의 양식인 성경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습니다."(히브 4,12) 그 생명력과 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손으로 써내려가며 마음에 새기는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점차로 하느님 말씀에 맞닿아 젖어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성서의 해II 맞이하여, 새해부터 성경필사를 위해 교구 달력과 주보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범위를 안내하고 있으니,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구장 동정

성소후원회 월례 미사



17일(화) 도화동 성당에서 교구 성소국 산하 성소후원회(=지도 이현수 베드로 신부)의 주관으로 회원 250명과 신학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12월 성소후원회 월례 미사가 봉헌되었다. 정신철 주교는 강론을 통해 “사제 성소는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선물이다”며, “우리가 사제 성소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전하며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준 성소후원회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미사 중 한 해 활동을 되짚으며, 열심히 활동한 본당을 대상으로 총 10개 성당의 우수 본당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교구 알림

총대리 정윤희 베드로 신부 은퇴 미사

총대리 정윤희 베드로 신부님의 은퇴 미사가 2020년 1월 11일(토)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봉헌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 안내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 실험 131-016-645915 (재)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
 • 성지 완성 후 후원 회원님의 이름을 성전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교구 알림

2020년도 사제·부제 서품식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로 교구 부제 8명, 교구 신학생 7명이 사제와 부제로 수품되려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수품되는 이들이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와 부제로 축성되어, 참된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 시 간: 1월 10일(금) 14시
-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 체육관(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
- 주 레: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단체 소식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을 위한 동행



재단법인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사무총장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은 청소년을 위한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간석4동 성당(=주임 신대근 마르코 신부)과 송도2동 성당(=주임 정장근 레미지오 신부)에서 해당 지원을 전달받았다. 간석4동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는 작년 성탄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들이 직접 보리빵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후원 물품을 마련하여 11월 30일(토)에 인천광역시 남동 단기 청소년 쉼터 바다의 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송도2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에서는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나눔 잔치를 통하여 모은 은총표를 기부하여 마련된 기금을 17일(화)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또래 친구들에게 사용해달라며 재단에 전달하였다. 이에 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동행에 함께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구 알림

cpbc가톨릭평화방송 TV 매일 미사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님의 주례로 영성적인 위로와 함께 봉헌되는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가 방송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송시간: 2020년 1월 5일(주일) 6:05, 12:05, 21:0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입당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 민수 6,22-27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2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레들을 이끄시니, 거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갈라 4,4-7

복음 환호송 |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 루카 2,16-21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교구 청 알림

◆ 2020년 구역반장 신년 교례 미사

때: 20/1/14(화) 11:00
 곳: 지구별 월례교육 교육본당 ☎ 032-765-6962

◆ 청소년사목국(유·청소년·교리교육부) 직원 모집

모집인원: 1명 / 접수마감: 20/1/9(목)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사제추천서
 ☎ 청소년사목국 032-765-6964, 6997,
 사무처 032-765-6961

교육 | 피정

◆ 고강동 성당 성령 세미나

때: 20/2/4~3/24 매주(화) [8주간]
 19:00~22:00 ☎ 010-9926-3363

◆ 평화방송 TV 성서 강좌 [녹화] 초대

·신교선 신부의 알기 쉬운 신약 체험
 강좌일정: 1/10, 17, 31 / 2/14, 28 /
 3/13, 27 / 4/3, 24 (해당 금요일 19:30~21:30)
 곳: 용현5동 성당 소성당
 교재: <신교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2월 피정

·겨울 침묵 피정: 1/7(화)~9(목), 2/11(화)~13(목)
 ·월 피정: 1/11(토), 2/15(토), 3/14(토) 10:30~16:20
 ·설 피정: 1/24(금)~26(주일) ☎ 02-990-1004

◆ 젊은이를 위한 겨울 피정

때·곳: 20/1/4~5 수원 분원 [1박 2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010-5313-0241

◆ 중·고생을 위한 <살레시오 3S영성 리더십교육>

때: 20/1/17(금)~19(주일)
 곳: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7호선 신봉역 4번 출구)
 ☎ 02-844-0388

◆ 한국외방선교수녀회(해외선교)

때·곳: 1/4(토) 15:00 서울본원
 ☎ 010-9353-1773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모임

때·곳: 1/5(주일) 9:30 서울 돈암동본부
 대상: 만 19~35세 ☎ 010-9937-0901

◆ 2020년 새해 피정

주제: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때·곳: 1/5(주일) 9:30~18:00 정릉본원
 ☎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010-4096-5973

교육 | 피정

◆ 고요안에서 기도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

· 성녀 예수의 데레사 묵상기도 학교
매월 1, 3주(화) / 첫모임: 2/11
오전반 10:00~12:30 / 저녁반 19:30~22:00
☎ 전교가르멜수녀회 010-7615-6365
· 심화과정: 십자가 요한 성인의 기도 가르침
매주(금) / 첫모임: 2/28
오전반 10:00~12:30 / 저녁반 19:30~22:00
☎ 전교가르멜수녀회 010-9817-7391

◆ 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때·곳: 1/8(수) 9:30~16:3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1강-박상운 신부, 2강-이현주 회장, 3강과 미사
회비 없음, 김밥 판매(2천원), 개인컵 준비
☎ 010-2367-2297, 010-5674-8511
대표: 02-777-1773

◆ 가정 성화를 위한 일일 피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때·곳: 1/6(월) 9:30~17:00 답동문화관 3층 성령홀
강사: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
☎ 032-761-6301, 010-9227-3265

◆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8박 9일)

때: 1/10(금)~18(토), 2/14(금)~22(토)
곳: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010-3340-0201

◆ 2020 살레시오 수도회 겨울 성소 대피정

대상: 예비 고3·성인 일반(만 33세 이하)
때: 20/1/31(금)~2/2(주일)
곳: 돈보스코 청소년센터(서울 여의대방로65)
☎ 010-5159-3949, 010-3894-1332

◆ 2020년 살레시오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주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때: 7/25(토)~8/17(월) [총 7차]
곳: 살레시오 청소년수련원(대전)
접수: 1/15(수) 10:00~ 비용: 12만 9천원
☎ 042-584-0654 / www.syceneter.net 참조

◆ 김웅열 신부와 함께 하는 찬양 치유 대피정

강사: 김웅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진행: 고영민 자문과 “셀라 민족들의 빛”
때: 1/16 10:30~17:00
곳: 지혜의 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5층
점심 무료 제공, 찬양 축제 파견 미사
☎ 032-343-1871, 010-3248-9705

미사 | 행사

◆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님 추모 미사

때: 11/25~2/28(월~금) 11:00 (공휴일 제외)
곳: 미래사목연구소 ☎ 031-986-7141

◆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미사

때·곳: 12/30(월) 답동 주교좌 성당 12:30 찬미,
체나콜로 기도후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합본집, 묵주, 메세지

◆ 운전기사 사도회 월례미사

때·곳: 20/1/3(금) 11:00 사회사목센터 4층 강당
-봉사하며 선교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연락 기다립니다.
☎ 010-6327-3427

◆ 아동복지시설 ‘너랑나랑의 집’ 후원 미사

때: 12/31 14:00 매월 마지막(화)
곳: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동인천 인일여고 앞)
☎ 032-777-3860, 010-9160-7451

◆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성모 신심 미사

때·곳: 1/4(토) 11:00 예수성심의 우리어머니성당
전세버스대절-인천 주안역 북광장(9:00 출발)
동암역 농협앞(9:05 출발), 서울역 1,4호선
14번 출구(9:00 출발) 일산동구청(9:30 출발)
12/31까지 예약필수 ☎ 02-379-8081, 010-4550-6955

모집 | 일반

◆ 상동 성당 사무장 및 관리직원 모집

·사무장 모집
자격: 회계 문서작업 및 엑셀가능자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직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격증사본
참고사항: 1종 보통 면허증 소지자
간편작업 경험자 우선
☎ 사무실 032-653-7322(월~휴무)

◆ 갑곶성지 관리직원 모집(주간)

자격: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전기, 소방, 가스)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접수: 방문제출 ☎ 032-933-1525

◆ 계산동 성당 관리장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65세 미만)
☎ 032-546-0321

◆ 부개동 성당 관리장 모집

자격: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남성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가능자격증
주임신부 추천서 ☎ 032-504-1011

◆ 전례 조각초 겨울특강 모집

1~2월 인천 논현역 푸르지오시티
☎ 전례미술연구소 010-7457-0811

◆ 가정호스피스 안내(인천성모병원)

대상: 말기암 환자 등 호스피스 대상자
담당: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032-280-6201~3

◆ 미사 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6(월)부터 [10주] ☎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 오르간아카데미

◆ 섭리이론영성센터 수강생 모집

성화와 함께 하는 성경공부(구약편)
때: 1/14~28(화) [3회기] 10:00~12:00
이론제작 실기반(화, 목, 금 중 선택)
때: 2/4~4/29 (주~1회) [12회기] 10:00~13:00
곳: 천주섭리수녀회(송월동 동화마을 내)
☎ 빈데레사 수녀 010-2645-8851

◆ 2020 인천박문초등학교 정교사 채용 안내

채용인원: 학급담당 2, 보건 1
서류제출: 12/23(월)~20/1/22(수)
채용시험: 필기(논술), 학급운영, 심층면접 등
☎ 본교 교무실 032-810-8508

◆ 성심중학교(야간) 학생 및 교사 모집

20년 제35기 신입생 30명 선착순 모집
교사 모집: 도덕, 미술(자원봉사)
부평4동 성당: 교육관 교무실(입학원서 작성 제출)
☎ 교장 010-3377-1764, 교감 010-7335-7657

◆ 교구 가톨릭 문화선교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전례음악 연구소 매주(토) 16:00~18:00
지휘 김유노 이나시오 관현악 모집
☎ 010-9115-1460(오디션)

◆ 가톨릭관동대 휴먼서비스대학 정시 모집

2020학년도 신입생 특선: 수능없이 면접전형만,
온라인수업 가능, 장학(30%, 50%, 100%) 전원혜택
학과: 언어재활상담학과, 치매전문재활학과,
산림치유학과, 중독재활학과 / 접수: 12/26(금)~31(화)
☎ 033-649-7666~8

◆ 가톨릭교육대학원 2020 전기(2차)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한국어 교육, 유아,
특수, 직업특수, 평생 <https://ged.catholic.ac.kr>
모집: 20/1/2(목)~14(화) / 면접: 20/1/21(화) 17:00
☎ 02-2164-4176, 4173, 4787

◆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12/26(목)~31(화) ☎ 053-850-2580

◆ 2020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교육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호남지역 사립대 취업률 1위
모집학과 및 인원: 간호학과10명
원서접수: 12/26(목)~31(화)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 061-280-5108, 5150

◆ 가톨릭상지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http://ipsi.csj.ac.kr>
정시1차 모집: 12/30~20/1/13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

순례 | 기타

◆ 성지순례

3/5 짜개우, 라방, 다낭(국적기) [5일] 130만원
5/4 크로아티아, 메주고리[12일] 335만원
동행: 이희진 신부
☎ 최금옥 최형베드로 032-666-9385

◆ 베트남 성지순례

베트남 라방 성모발현성지 순례
일정: 3/9(월)~14(토) 하노이, 짜개우 성모발현성지
라방 성모발현성지(1박 피정)
지도: 김선태 야고보 신부
순례비용: 125만원 ☎ 032-773-5995